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과 영향요인

김 지 경*

본 연구에서는 다중격차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 청년세대의 이행기 삶에 대한 자신감 수준을 살펴보고자, 다섯 가지 항목(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이행기 삶의 자신감의 수준을 청년들 특성별로 비교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와 서열로짓모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청년세대의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은 보통 수준(3.0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3.32점)이며, 인간관계→연애 및 결혼→일자리→내 집 마련과 출산 및 양육 순으로 자신감의 수준이 보였다. 둘째, 청년들의 특성 중 교육수준, 가구소득, 사회적지지, 자존감에 따른 삶의 자신감의 차이가 상당하여 이미 세대 내 경제적 격차 및 삶의 질적 격차가 미래 삶에 대한 심리적 격차로 확대되었음을 확인되었다. 셋째,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과 미혼상태는 이행기 삶의 자신감을 낮추는 공통요인이고, 교육수준과 정규직 취업상태는 자신감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높은 가구소득은 총자신감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는 하나, 경제적 여건이 이행기 삶의 자신감에 대한 절대적 영향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감소되는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 내 격차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생애주기흐름의 포괄적 청년정책 수립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 격차 완화의 정책 수단으로서 심리·정서측면의 사회적지지 강화를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 청년, 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격차

Ⅰ. 서 론

저성장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을 둘러싼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급속하게 얼어붙은 고용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청년들은 생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속되는 취업난으로 학업기간의 연장과 졸업의 지연, 졸업 후 상당한 시간의 취업준비 기간,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그러나 취업빙하기에 청년들이 겪어내고 있는 과정과 그 속에서의 고통은 성인기 이행에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경험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청년세대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이전세대와는 다른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박세길, 201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jkkim@nypi.re.kr)

이전세대와는 달리 자립기반 형성이 어려운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사회적 약자로 위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구조적으로 강요된 빈곤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후지타 다카노리, 2016; 후쿠시마 미노리, 2015). 청년세대가 빈곤세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영역, 즉 소득과 자산, 교육 등에서의 격차들이 중첩되고 체계화되어 나타나는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가 청년세대에서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중첩이 체계화 된다는 것은 일단 한 영역에서 낙오하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 조차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전병유·신진욱 외, 2016). 즉 패자부활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2015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전국의 19세~34세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의식조사'의 결과에 이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이미 한국사회가 노력에 따른 대가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85%)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사회(65.1%)로 인식하고 있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5; 한겨레, 2015.08.19).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안정된 고용과 높은 임금, 그리고 괜찮은 근로조건 등을 보장받는 1차 노동시장과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갖는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되는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을 위한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 채용의 80%이상을 경력직으로 채웠기 때문에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세대의 몫은 급격하게 줄게 되었고, 그 대신 급격하게 증가한 임시직과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청년세대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박세길, 2015).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매우 적은 기회를 잡기 위하여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청년들은 '포기'를 선택하기에 이르렀다(조한혜정·엄기호 외, 2016). 청년세대가 3포(연애, 결혼, 출산)이든 또는 5포(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이든,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되는 주된 사유는 경제적인 이유이다(마크로밀엠브레인, 2014). 청년세대 일각에서는 생활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기해야하는 현실 상황에서 연애나 결혼, 출산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연애나 결혼, 출산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 또는 스스로 갈망하는 일이 아닐 수 있는데 '포기'로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다(최서윤·이진송·김송희, 2017; 송동욱·이기형, 2017))는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야할 것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제까지 일정 나이가 되면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등의 연령에 따른 표준적 생애경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며, 이는 곧 사회적 재생산의 단절 문제와 연계된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의 삶의 계획할 수 없는 불안정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나 절망이 청년들을 '포기'의 선택으로 이끈다(조한혜정·엄기호 외, 2016; 야마다 마사히로, 2010)는 점이다. 생존경쟁의 과정에서 청년들은 한국 사회가 성취지위보다는 귀속지위의 영향이 더 큰 사회임을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깨닫는다(전병유·신진욱 외, 2016). 다시 말해, 청년들은 노력과 포기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에서는 능력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부모의 부나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모든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면서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부모의 지위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 짓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스티븐 J.·로버트 K., 2015; 조한혜정·엄기호 외, 2016). 청년세대와 관련하여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론은 현실의 삶에서 능력주의 신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청년들이 이미 알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심화된 다중격차 사회에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단념을 하게 되고, 현실로 부터 도주하기 시작한다. 출생과 같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상관없는 요인에 의한 격차의 확대는 개인의 의지를 상실케 한다. 즉 넘을 수 없는 계층의 벽을 느끼면 그 벽을 넘으려 노력을 해도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의지는 상실되는 것이다(전병유·신진욱 외, 2016). 사회·경제적 격차는 생활의 질적 격차를 낳고 그대로 심리적 격차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 격차이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고 불안정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신감과 장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 격차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야마다 마사히로, 2010).

고도성장기와 같이 조금 노력하면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꾸미는 것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과 노력하거나 하지 않거나 지금 당장 일생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전망되는 상황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확연히 다르다(전병유·신진욱 외, 2016). 단적인 예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청년세대의 자조적 신조어의 등장이다. 취업준비생의 54.2%가 이번 생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강한 노동 강도와 저임금의 영향으로 임금근로자의 40.8%가 이생망을 생각한다(경향신문특별취재팀, 2017), 그리고 다중격차라는 사회구조 하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년 세대 내 격차가 이미 심각한 수준(한겨레, 2015.0819)이라는 조사결과에 비추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의 삶에 대한 희망, 의지 또는 자신감 등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격차는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청년세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은 앞으로 삶에 대한 심리적 격차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고용'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 즉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짧지 않은 기간 취업빙하기가 지속되고 있고, 그 상태가 지속되어온 시간만큼이나 심화된 격차는 이미 청년들의 심리·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오늘날 청년세대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특히 삶의 의지나 자신감과 같은 이행기의 심리적 격차는 그와 같은 접근으로는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그리고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동력과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논의하기 어렵다.

'N포세대', '이생망', '노답사회', '금수저 vs 흙수저' 등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신조어들에는 이미 청년세대 내 심리적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어 압축적으로 도출된 용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들 신조어가 주목받고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의 측면에 있어서는 청년세대의 심리적 측면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삶의 의지나 자신감과 관련된 실증연구 또는 세대 내 심리적 격차에 주목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제19차 년도(2016년)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세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격차를 이행기 삶에 대한 자신감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중격차 사회에서 청년세대가 동질적 단일 집단이 아닌, 이질적 특성의 다 분화된 하위집단으로 존재하며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재 분화되고 있고(김지경·정연순, 2015),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세대 내 격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5; 한겨레, 2015.08.19.)는 사실을 고려하여 청년세대 특성에 따른 이행기 삶의 자신감의 차이를 검증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년세대의 심리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기제를 발견하고자 한다.

Ⅱ.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자

가.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6년에 수집된 한국노동패널 제19차 조사의 가구, 개인, 부가조사(청년층) 자료를 병합하여 생성한 자료이다. 병합자료에서 만15세~만34세의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3,225명) 중 조사시점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들을 제외한 2,563명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병합 전 가구자료에서는 분석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총소득을 산출하고 생성된 변수를 추출하였으며, 개인자료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과 취업특성 변수(취업여부, 취업형태, 정규직여부)를 추출하였다.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서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이행기 삶의 자신감(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 및 양육) 변수와 경제적으로 독립여부, 사회적지 및, 자존감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나. 분석 대상자 특성

분석대상자 2,563명의 구성을 사회·인구학적 특성부터 먼저 살펴보면, 남성(49.8%)과 여성(50.2%)이 반반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고, 평균 나이 26.9세로 20대(20세~30세 미만)가 55.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2년제(20.6%) 및 4년제(26.2%)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이 46.8%이고 졸업자의 경우 고졸 22.8%, 2년제 대졸 7.1%, 4년제 졸 19.2%이며, 석사재학 이상은 4.1%로 구성되어 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72.2%, 기혼이 27.8%이다.

<표 1> 분석대상자 특성

(단위: 명, %, 평균 점)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2,563	100.0
사회·인구 학적특성	성별	남성	1,277	49.8
		여성	1,286	50.2
	연령	20세 미만	188	7.3
		20세~25세 미만	697	27.2
		25세~30세 미만	729	28.4
		30세 이상	949	37.1
		평균(편차)	26.9	(4.8)
	교육수준	고졸이하	583	22.8
		전문대 재학	528	20.6
		전문대 졸업	180	7.1
		4년제대 재학	672	26.2
		4년제 졸업	493	19.2
		석사재학 이상	105	4.1
		평균(편차)	13.7	(2.1)
	혼인상태	미혼	1,851	72.2
		기혼	712	27.8
취업특성	취업여부	취업	1,379	53.8
		미취업	1,184	46.2
	취업형태(취업자)	임금근로	1,277	92.5
		비임금근로	102	7.5
	정규직여부(임금근로자)	정규직	907	71.1
		비정규직	370	28.9
경제적 여건 특성	연평균 가구소득	3,000만원 미만	584	22.8
		3,000-4,000만원 미만	453	17.7
		4,000-5,000만원 미만	376	14.7
		5,000-7,000만원 미만	521	20.3
		7,000만원 이상	629	24.5
		평균(편차)	5,419.8	(3,991.4)
	경제적 독립 여부	독립	1,194	70.9
		비독립	744	29.1
심리·정서 특성	사회적지지	1~5점 측정 평균(표준편차)	3.5	(0.5)
	자존감	1~5점 측정 평균(표준편차)	3.6	(0.4)
이행기 삶의 자신감	인간관계	1~5점 측정 평균(표준편차)	3.6	(0.7)
	연애 및 결혼		3.3	(0.8)
	일자리		3.2	(0.9)
	내집마련		3.1	(0.9)
	출산 및 양육		3.1	(0.9)

또 취업특성과 경제적 여건 특성을 살펴보면, 앞서 교육수준에서 살펴본 대학 재학생의 비율(46.8%)과 유사한 수치인 46.2%가 미취업상태이고, 53.8%가 취업상태이다. 취업자의 92.5%는 임금근로자이며 이들 중 71.1%가 정규직이다.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 있는 이들의 비율은 70.9%로 높은 수준이다. 분석대상 청년들이 속한 가구의 연평균 총소득은 평균 5,419.8만원인데,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의 비율(22.8%)과 7,000만원 이상(24.5%)의 비중 적지 않고 편차 금액이 높아 소득의 격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심리·정서 특성을 살펴보면,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사회적 지지(3.5점)와 자존감(3.6점)은 보통(3) 수준보다 높다. 다섯 가지(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 및 양육) 항목으로 측정한 삶의 자신감은 모두 보통(3) 수준보다 높기는 하나,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자신감은 인간관계(3.6점)이고, 연애 및 결혼(3.3점), 일자리(3.2점), 내 집 마련(3.1점), 출산 및 양육(3.1점)의 순으로 높다.

2. 분석 변수 및 방법

가. 분석 변수

한국노동패널 제19차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친구 동료 등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원하는 연애 및 결혼하는 것',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 '내 집 마련 등 원하는 주거에서 사는 것',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가를 5점(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항목의 측정을 청년세대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이행기 삶의 자신감으로 설정하고, 청년들의 이행기 삶의 자신감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다섯 가지 항목으로 측정된 이행기 삶의 자신감의 수준과 청년들의 삶의 자신감 수준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중격차 사회의 현실 속에서 청년세대 내 격차 발생의 중첩 요인이 되는 특성들을 고려하여 네 가지 측면의 설명 변수를 구성하였다. 우선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고, 취업난 속에서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와 고용안정성을 고려한 취업특성,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과 본인의 생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가구소득과 경제적 독립여부를 경제적 여건 특성 변수로 포함하였다. 이에 더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을 심리·정서적 특성변수로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성별과 혼인상태, 취업여부와 취업형태, 정규직여부의 세 가지 취업특성, 그리고 경제적 독립여부는 가변수의 형태로 분석되었고, 연령과 교육수준, 가구소득과 사회적지지 및 자존감은 연속변수의 형태로 분석되었다. 단, 청년세대 특성에 따른 삶의 자신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연령과 교육수준, 가구소득, 사회적지지 및 자존감과 같이 연속변수로 측정된 값을 범주 값으로 전환하여 세대 내 격차를 검증하였다.

심리·정서특성인 사회적지지[1]와 자존감[2] 변수는 각각 11개 항목[3]을 5점(1. 전혀 그렇지 않다~ 5.

1)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주변 환경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전제로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장현지·홍아정, 2014), 정서적 측면과 도구적 측면의 지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이라 할 수 있다(김성희, 2016). 제19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Abbey, Aramis와 Caplan이 세 가지 요소(감정, 긍정, 원조)에 근거하여 개발한 척도(심리척도핸드북Ⅱ, 2000)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 자존감(자아존중감: self-esteem)은 자신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심리적 양상으로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자기 내면에 지니게 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미래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공적 적응과 관련된 대처자원으로 작용한다(한상숙·김경미, 2006; 홍성례, 2007; Rosenberg, 1981; Winter et. al, 2002). 제19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Rosenberg가 개발한 척도(심리척도핸드북Ⅰ, 1999)를 수정 사용하였다.

3) 사회적지지 측정 11개 항목: ①주위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②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준다. ③주위 사람들이 나를 염려해 준다. ④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해준다. ⑤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다. ⑥고민이나 감정 등을 털어놓고 싶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⑦주위 사람들과 종종 다툰다. ⑧주위 사람들이 나의 신경을 건드린다. ⑨주위 사람들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못 이해한다. ⑩주위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못마땅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⑪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쾌해하거나 화난태도로 대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0.80
자존감 측정 11개 항목: ①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②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③가끔 내가

매우 그렇다)척도로 측정한 값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부정적으로 기술된 측정 항목은 역산하여 반영하였다.

<표 2>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변수값	분석
사회·인구학적특성	성별	1(남성), 0(여성)	공통
	연령	20세 미만, 20세~25세 미만, 25세~30세 미만, 30세 이상	차이검증
		만나이	모델분석
	교육수준	고졸, 2년제 대학 재학,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4년제 대학 졸업, 석사재학 이상	차이검증
		학력과 이수유형를 기준으로 산출된 교육년수	연속
	혼인상태	1(미혼), 0(기혼)	공통
취업특성	취업여부	1(취업), 0(미취업)	공통
	취업형태(취업자)	1(임금근로자), 0(비임금근로자)	공통
	정규직여부(임금근로자)	1(정규직), 0(비정규직)	공통
경제적 여건 특성	연평균 가구소득	3천만원 미만, 3천~4천만원 미만, 4천~5천만원 미만, 5천~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차이검증
		연평균 가구총소득의 자연로그 값	모델분석
	경제적 독립 여부	1(독립), 0(비독립)	공통
심리·정서 특성	사회적지지	보통 이상(>3), 보통(=3), 보통미만(<3)	차이검증
		1점(전혀 그렇지않다)~5점(매우그렇다)로 측정한 11개 항목의 평균 값	모델분석
	자존감	보통 이상(>3), 보통(=3), 보통미만(<3)	차이검증
		1점(전혀 그렇지않다)~5점(매우그렇다)로 측정한 11개 항목의 평균 값	모델분석
이행기 삶의 자신감	①인간관계	1점(전혀 그렇지않다)~5점(매우그렇다)로 측정한 각 항목의 평균값	모델분석
	②연애 및 결혼		
	③일자리		
	④내집마련		
	⑤출산 및 양육		
	총자신감	①~⑤항목 총합의 평균값	모델분석

같은 방식의 5점 척도로 측정된 이행기 삶의 자신감 변수는 다섯 가지 항목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연속변수로 생성하고, 이를 삶의 자신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모델의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항목의 5점 리커트 척도 측정값은 각 항목에 대한 자신감 수준 영향요인 분석의 종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④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⑤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⑥내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⑦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⑧내 자신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⑨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작인 것 같다. ⑩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⑪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신뢰도계수 Cronbach's α=0.83

나. 분석 방법

<표 2>에 제시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t-test와 GLM-test를 통해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에 대한 차이를 검정하였으며, 이 차이 검증을 토대로 삶의 자신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델분석은 종속변수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활용되었는데, 다섯 가지 항목의 총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방법으로,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열로짓분석(Ordered Logit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여부, 취업형태, 정규직 여부의 취업특성, 가구소득과 경제적 독립여부의 경제적 여건 특성, 그리고 사회적지지와 자존감의 심리·정서 특성변수들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다, 또한 여기에 경제적 여건 특성과 심리·정서 특성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경제적 여건 특성에 대한 심리·정서특성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검증

가. 5개 항목 총자신감 차이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 집 마련, 그리고 출산과 양육이라는 이행기 삶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신감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이들 다섯 가지 항목의 총 자신감의 산출하고 청년세대 내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격차인가를 검증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섯 가지 항목의 평균 총자신감의 수준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은(3.32점) 수준이며,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 따라 총자신감 수준의 차이가 상당하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특성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그 수준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연령은 20대 청년들의 총자신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20세 미만(3.33점)과 30세 이상(3.44점)의 청년들의 총자신감 수준이 20대 청년들(20~25세 미만: 3.23점, 25~30세 미만: 3.25점)에 비해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미만(3.11점)이 가장 낮고, 2년제 전문대학 졸업(3.27점)자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학 졸업자(2년제: 3.27점, 4년제: 3.36점)보다는 재학생(2년제: 3.36점, 4년제: 3.43점)의 총자신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반적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자신감의 수준이 높아 석사재학 이상(3.56점)의 총자신감의 수준이 가장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자(3.20점)와 기혼자(3.65점)의 차이가 연령이나 교육수준의 차이보다도 더 크다.

<표 3>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검증 : 5개 항목 총자신감

(단위: 점)

구 분			평균(편차)	t-test or GLM-test
전체			3.32(0.69)	
사회·인구학적특성	성별	남성	3.30(0.70)	-1.77
		여성	3.35(0.67)	
	연령	20세 미만	3.33(0.61)	16.40***
		20~25세 미만	3.23(0.67)	
		25~30세 미만	3.25(0.72)	
		30세 이상	3.44(0.68)	
	교육수준	고졸이하	3.11(0.77)	18.16***
		전문대 재학	3.36(0.67)	
		전문대 졸업	3.27(0.64)	
		4년제대 재학	3.43(0.67)	
		4년제대 졸업	3.36(0.60)	
		석사재학 이상	3.56(0.67)	
	혼인상태	미혼	3.20(0.69)	16.29***
		기혼	3.65(0.59)	
취업특성	취업여부	취업	3.41(0.69)	-6.59***
		미취업	3.23(0.68)	
	취업형태(취업자)	임금근로	3.39(0.69)	2.61**
		비임금근로	3.58(0.69)	
	정규직여부(임금근로자)	정규직	3.50(0.65)	-9.77***
		비정규직	3.23(0.69)	
경제적 여건 특성	연평균 가구소득	3,000만원 미만	3.13(0.72)	18.05***
		3,000-4,000만원 미만	3.28(0.68)	
		4,000-5,000만원 미만	3.39(0.66)	
		5,000-7,000만원 미만	3.38(0.68)	
		7,000만원 이상	3.44(0.66)	
	경제적 독립 여부	독립	3.48(0.66)	-10.78***
		비독립	3.19(0.69)	
심리·정서 특성	사회적지지	보통이상(>3)	2.76(0.76)	171.89***
		보통(=3)	3.08(0.64)	
		보통미만(<3)	3.44(0.63)	
	자존감	보통이상(>3)	2.67(0.77)	105.32***
		보통(=3)	3.08(0.67)	
		보통미만(<3)	3.39(0.65)	

주: ***, **, *는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이하 표 동일).

취업특성별로는 취업자(3.41점)가 미취업자(3.23점)보다 총자신감 수준이 높고, 취업을 했다면 비임금근로자(3.58점)가 임금근로자(3.39점)보다, 임금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정규직(3.50점)이 비정규직

(3.23점)보다 높아 노동시장의 진출여부 및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의 격차가 낮은 수준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여건 특성별로는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들의 총자신감의 수준도 높다. 연평균 4천만원을 기점으로 4천만원 미만 가구의 청년들의 총자신감 수준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데, 연평균 3천만원 미만 가구의 청년들이 가장 낮은 총자신감 수준(3.13점)을 보였으며, 7천만원 이상 가구의 청년들이 가장 높은 총자신감 수준(3.44점)을 보였다. 가구소득과는 별개로 경제적으로 독립 상태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도 총자신감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독립한 청년들의 총자신감(3.48점)이 비독립 상태에 있는 청년(3.19점)에 비해 높다.

심리·정서적 특성으로서 사회적지지와 자존감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 사회적지지와 자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총자신감이 높다. 특히 사회적지지나 자존감의 수준이 보통수준보다 낮은 청년들과 보통수준보다 높은 청년들의 삶의 총자신감의 차이는 다른 특성들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차이보다도 큰 격차를 보였다.

나. 각 항목별 자신감 차이

이행기 삶의 총자신감에 이어 다섯 가지의 항목 각각에 대해 청년들이 인지하는 자신감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다섯 가지 항목 중 가장 높은 자신감 수준을 보인 항목은 인간관계(3.63점)이고, 연애 및 결혼(3.39점), 일자리(3.26점)이 그 다음 순이다. 내 집 마련이나 출산 및 양육(3.19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4>~<표 5>에 제시된 ①인간관계, ②연애 및 결혼, ③일자리, ④내 집 마련, ⑤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 수준의 분석 결과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경우 총자신감과 같이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차이의 내용은 다른데, 연령의 경우 25세~30세미만(3.54점)에서 자신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20세 미만(3.68점)과 30세 이상(3.39점)에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높아 고졸이하(3.46점)와 석사재학 이상(3.82점)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3.58점)보다는 기혼(3.76점)의 인간관계 자신감 수준이 높다. 취업특성과 경제적 여건 특성 그리고 심리·정서특성에 따른 자신감의 수준은 총자신감 수준 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즉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높고,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인간관계의 자신감 수준이 높으며, 가구소득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인간관계 자신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자신감 수준도 높을수록 인간관계의 자신감 수준도 높다.

원하는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자신감의 경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남성(3.33점)보다는 여성(3.45점)의 자신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20~25세 미만: 3.29점, 25~30세 미만: 3.28)가 20세 미만(3.35점)이나 30세 이상(3.5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기혼자 구성 가능성이 높은 30세 이상의 자신감 점수가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 수준도 높으나,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학생들

의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졸이하(3.19점)와 2년제 대학 졸업자(3.30점)의 자신감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혼인상태별로 미혼자의 자신감(3.21점)은 기혼자(3.87점)보다 현격하게 낮다. 취업특성이나 경제적 여건특성 그리고 심리·정서적 특성의 차이는 총자신감이나 인간관계 항목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경향의 차이로 나타났다.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경우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20세~25세(3.20점)연령대의 자신감이 가장 낮고, 20세 미만(3.33점)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자신감의 수준이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2.99점)에서 가장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자신감도 높아 석사재학 이상(3.60점)에서 가장 높다. 그 외 특성별로는 인간관계나 연애 및 결혼은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어 다섯 가지 이행기 삶의 자신감 항목 중 평균 자신감의 수준이 가장 낮은 두 개 항목, 즉 ④내 집 마련과 ⑤출산 및 양육에 대한 청년들의 자신감 수준을 살펴보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체로 앞서 살펴본 항목들에서와 같은 결과의 경향을 보인다. 다만, 내 집 마련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의 수준이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취업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은 다른 항목들과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청년들의 이행기 삶에 대한 총자신감과 다섯 가지 각 항목에 대한 자신감의 수준, 그리고 특성에 따른 자신감 수준의 차이 검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행기 삶에 대한 청년들의 자신감 수준은 보통수준을 상회(3.32점)하는 수준이며, 다섯 가지(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 및 양육) 항목 중 인간관계(3.63점)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가장 높고, 내 집 마련과 출산 및 양육(3.19점)이 자신감 수준이 가장 낮다. 청년들의 자신감의 수준은 특성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이들 차이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이 확인되었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특성은 성별과 취업형태인데, 성별은 연애 및 결혼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자신감 수준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취업형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청년 세대 내 삶의 자신감을 차이는 연령에 있어 20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은 높아 고졸이하와 석사 재학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 졸업자보다는 대학 재학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자신감 수준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자신감 수준이 높고 임금근로자보다는 비임금근로자의 자신감 수준이 높으며, 임금근로자라면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모든 항목의 자신감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삶의 자신감 수준도 높으며,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나 자존감과 같은 심리·정서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자신감 또한 높다.

다음에서는 차이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청년들의 특성이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가를 다중회귀분석과 서열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4>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검증 : ①인간관계, ②연애 및 결혼, ③일자리

(단위: 점)

구 분			①인간관계	②연애 및 결혼	③일자리
전체			3.63(0.73)	3.39(0.85)	3.26(0.95)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3.63(0.74)	3.33(0.86)	3.28(0.84)
		여성	3.63(0.71)	3.45(0.83)	3.25(0.86)
		t-test	-0.12	-3.58***	1.07
	연령	20세 미만	3.68(0.68)	3.35(0.74)	3.33(0.79)
		20~25세 미만	3.63(0.72)	3.29(0.80)	3.20(0.82)
		25~30세 미만	3.54(0.78)	3.28(0.86)	3.24(0.87)
		30세 이상	3.69(0.69)	3.57(0.87)	3.32(0.86)
		GLM-test	5.62***	22.13***	3.73*
	교육수준	고졸이하	3.46(0.78)	3.19(0.93)	2.99(0.93)
		전문대 재학	3.62(0.70)	3.43(0.84)	3.27(0.83)
		전문대 졸업	3.66(0.70)	3.30(0.76)	3.27(0.81)
		4년제대 재학	3.66(0.70)	3.52(0.84)	3.40(0.82)
		4년제대 졸업	3.74(0.69)	3.39(0.75)	3.34(0.75)
		석사재학 이상	3.82(0.71)	3.71(0.87)	3.60(0.79)
		GLM-test	10.12***	13.36***	19.95***
	혼인상태	미혼	3.58(0.75)	3.21(0.82)	3.20(0.83)
		기혼	3.76(0.64)	3.87(0.73)	3.44(0.86)
		t-test	6.15***	19.71***	6,55***
취업 특성	취업여부	취업	3.69(0.71)	3.47(0.86)	3.39(0.83)
		미취업	3.56(0.73)	3.31(0.83)	3.12(0.85)
		t-test	-4.47***	-4.71***	-8.26***
	취업형태(취업자)	임금근로	3.67(0.71)	3.45(0.86)	3.38(0.82)
		비임금근로	3.91(0.73)	3.63(0.84)	3.54(0.86)
		t-test	3.23***	1.99*	1.93
	정규직여부(임금근로자)	정규직	3.73(0.68)	3.57(0.82)	3.51(0.77)
		비정규직	3.58(0.74)	3.30(0.85)	3.13(0.86)
		t-test	-5.15***	-7.75***	-11.31***
경제적 여건 특성	연평균 가구소득	3,000만원 미만	3.48(0.81)	3.24(0.90)	3.10(0.88)
		3,000-4,000만원 미만	3.59(0.67)	3.35(0.88)	3.18(0.84)
		4,000-5,000만원 미만	3.68(0.72)	3.48(0.83)	3.29(0.85)
		5,000-7,000만원 미만	3.67(0.72)	3.45(0.83)	3.32(0.83)
		7,000만원 이상	3.74(0.65)	3.46(0.78)	3.42(0.81)
		GLM-test	10.76***	7.80***	12.71***
	경제적 독립 여부	독립	3.71(0.67)	3.61(0.83)	3.38(0.85)
		비독립	3.56(0.76)	3.21(0.82)	3.17(0.83)
		t-test	-5.37***	-12.15***	-6.34***
심리·정서 특성	사회적지지	보통이상(>3)	3.02(0.88)	2.67(0.92)	2.59(0.94)
		보통(=3)	3.27(0.69)	3.15(0.81)	3.01(0.85)
		보통미만(<3)	3.71(0.68)	3.47(0.82)	3.34(0.81)
		GLM-test	101.76***	83.70***	74.21***
	자존감	보통이상(>3)	3.11(0.83)	2.80(0.93)	2.64(0.92)
		보통(=3)	3.33(0.69)	3.10(0.78)	3.05(0.73)
		보통미만(<3)	3.74(0.66)	3.52(0.79)	3.39(0.79)
		GLM-test	140.49***	126.01***	130.95***

<표 5>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검증 : ④내집마련, ⑤출산 및 양육

(단위: 점)

구 분			④내집마련	⑤출산 및 양육
전체			3.13(0.90)	3.19(0.90)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	3.09(0.91)	3.15(0.89)
		여성	3.17(0.88)	3.23(0.91)
		t-test	-2.17*	-2.18
	연령	20세 미만	3.14(0.79)	3.13(0.81)
		20~25세 미만	3.00(0.88)	3.06(0.86)
		25~30세 미만	3.08(0.91)	3.10(0.95)
		30세 이상	3.26(0.90)	3.37(0.88)
		GLM-test	12.69***	20.94***
	교육수준	고졸이하	2.88(0.96)	3.02(0.98)
		전문대 재학	3.20(0.90)	3.25(0.91)
		전문대 졸업	3.01(0.85)	3.10(0.79)
		4년제대 재학	3.27(0.87)	3.33(0.89)
		4년제대 졸업	3.17(0.79)	3.16(0.84)
		석사재학 이상	3.34(0.87)	3.32(0.89)
		GLM-test	14.94***	8.42***
	혼인상태	미혼	2.99(0.88)	3.01(0.88)
		기혼	3.49(0.83)	3.66(0.78)
		t-test	13.03***	17.89***
취업특성	취업여부	취업	3.21(0.92)	3.27(0.90)
		미취업	3.04(0.80)	3.10(0.90)
		t-test	-4.76***	-4.67***
	취업형태(취업자)	임금근로	3.19(0.91)	3.26(0.90)
		비임금근로	3.43(0.93)	3.37(0.90)
		t-test	2.54*	1.18
	정규직여부(임금근로자)	정규직	3.32(0.89)	3.38(0.87)
		비정규직	3.03(0.89)	3.09(0.91)
		t-test	-7.96***	-7.74***
경제적 여건 특성	연평균 가구소득	3,000만원 미만	2.87(0.92)	2.98(0.95)
		3,000-4,000만원 미만	3.08(0.89)	3.19(0.88)
		4,000-5,000만원 미만	3.22(0.88)	3.28(0.88)
		5,000-7,000만원 미만	3.21(0.88)	3.25(0.91)
		7,000만원 이상	3.29(0.84)	3.29(0.86)
		GLM-test	20.28***	11.37***
	경제적 독립 여부	독립	3.28(0.92)	3.41(0.89)
		비독립	3.00(0.86)	3.01(0.87)
		t-test	-8.04***	-11.46***
심리·정서특성	사회적지지	보통이상(>3)	2.54(0.93)	2.54(0.98)
		보통(=3)	2.98(0.86)	3.01(0.85)
		보통미만(<3)	3.19(0.88)	3.26(0.88)
		GLM-test	45.70***	55.76***
	자존감	보통이상(>3)	2.56(0.95)	2.68(0.95)
		보통(=3)	2.96(0.87)	2.98(0.82)
		보통미만(<3)	3.24(0.85)	3.30(0.87)
		GLM-test	91.90***	79.1***

2. 이행기 삶의 자신감 영향요인

가. 총자신감 영향요인

이행기 삶의 총자신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특성, 경제적 여건특성, 심리·정서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적 여건특성과 심리·정서특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 심리·정서 특성인 사회적지지가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그리고 자존감이 경제적 독립여부에 따른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표 6> 자신감 영향요인: 5개 항목 총자신감

변수	Multiple Regression Model 표준화계수(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1)	0.005 (.0.022)
연령	-0.022 (0.003)***
교육년수	0.025 (0.005)***
혼인상태(미혼=1)	-0.389 (0.035)***
취업 특성	
취업여부(취업자=1)	0.241 (0.060)***
취업형태(임금근로=1)	-0.263 (0.064)***
정규직여부(정규직=1)	0.204 (0.035)***
경제적 여건 특성	
가구소득(로그)	0.198 (0.060)**
경제적 독립여부(독립=1)	0.589 (0.187)**
심리·정서특성	
사회적지지	0.769 (0.168)***
자존감	0.401 (0.149)**
상호작용항	
가구소득*사회적지지	-0.052 (0.019)**
가구소득*자존감	0.003 (0.017)
경제적 독립여부*사회적지지	0.002 (0.062)
경제적 독립여부*자존감	-0.153 (0.057)**
상수	-0.613 (0.528)
N	2,563
F	91.68***
Adj.R^2	0.351

주: 추정계수는 표준화계수. ***, **, *는 유의수준 0.001, 0.01, 0.05에서 유의함(이하 표 동일).

요인별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과 혼인상태, 취업형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총자신감의 수준이 낮고, 미혼 청년이 기혼청년에 비해 총자신감이 낮으며,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청년들이 비임금근로 청년들에 비해 총자신감이 낮다.

이들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 즉 교육년수, 취업여부, 정규직여부, 가구소득, 경제적 독립여부, 사회적지지, 자존감은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자신감의 수준이 높고,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가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총자신감의 수준이 높다. 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자신감 수준은 높으며 경제적으로 독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비독립상태에 있는 이들에 비해 자신감의 수준이 높다. 심리·정서적으로 사회적지지와 자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총자신감의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지지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은 경제적 독립여부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 각 항목별 영향요인

이행기 삶의 총자신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섯 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열로짓분석을 통해 항목별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7>과 <표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결과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만이 총자신감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 외 항목들에 대한 영향요인은 동일하지 않다.

항목별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에는 총자신감 영향요인 분석에서와 같이 연령과 혼인상태, 취업형태가 부(-)의 영향을 미치고, 교육년수를 비롯한 취업여부, 취업형태, 가구소득, 경제적 독립여부, 사회적지지, 자존감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가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이 경제적 독립여부의 영향력을 낮추는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자신감에는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특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여건이나 심리·정서특성,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 영향요인 분석에서와 같이, 연령과 혼인상태, 그리고 취업형태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교육년수와 취업여부, 정규직 여부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연령수준이 높고, 미혼자인 경우 기혼자에 비해,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자가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자신감의 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높다.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에는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특성, 그리고 심리·정서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앞선 항목의 분석에서와 같이 연령과 혼인상태, 그리고 취업형태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교육년수와 취업여부, 정규직여부, 사회적지지와 자존감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연령수준이 높고, 미혼자의 경우 기혼자에 비해, 그리고 임금근로자는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자인 경우,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근로자가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높다. 또 사회적지지와 자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 수준은 높다.

<표 1-7> 각 항목별 영향요인 : ①인간관계, ②연애 및 결혼, ③일자리

	Ordered Logit Model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1)	0.056 (0.082)	-0.032 (0.079)	0.121 (0.078)
연령	-0.060 (0.012)***	-0.074 (0.011)***	-0.074 (0.011)***
교육년수	0.037 (0.019)	0.080 (0.019)***	0.080 (0.019)***
혼인상태(미혼=1)	-0.333 (0.128)*	-1.729 (0.129)***	-1.729 (0.129)***
취업 특성			
취업여부(취업자=1)	0.971 (0.228)***	0.481 (0.214)*	0.481 (0.214)*
취업형태(임금근로=1)	-0.859 (0.239)***	-0.534 (0.227)*	-0.534 (0.227)*
정규직여부(정규직=1)	0.250 (0.128)	0.447 (0.123)*	0.447 (0.123)***
경제적 여건 특성			
가구소득(로그)	0.647 (0.215)**	0.357 (0.228)	0.357 (0.228)
경제적 독립여부(독립=1)	3.025 (0.677)***	0.649 (0.657)	0.649 (0.657)
심리·정서특성			
사회적지지	2.617 (0.617)***	1.589 (0.625)	1.589 (0.625)*
자존감	1.419 (0.542)**	1.307 (0.562)	1.307 (0.562)*
상호작용항			
가구소득*사회적지지	-0.181 (0.071)*	-0.075 (0.072)	-0.075 (0.072)
가구소득*자존감	0.018 (0.062)	-0.011 (0.065)	-0.011 (0.065)
경제적 독립여부*사회적지지	0.021 (0.227)	0.258 (0.219)	0.258 (0.219)
경제적 독립여부*자존감	-0.806 (0.212)***	-0.386 (0.206)	-0.386 (0.206)
/cut1	8.442 (1.875)	4.022 (1.971)	4.022 (1.971)
/cut2	10.453 (1.877)	6.384 (1.976)	6.384 (1.976)
/cut3	13.316 (1.889)	8.941 (1.982)	8.941 (1.982)
/cut4	16.878 (1.896)	12.016 (1.984)	12.061 (1.984)
N	2,563	2,563	2,563
LR cji^2	728.07***	987.17***	774.05***
Pseudo .R^2	0.131	0.154	0.121
Log likelihood	-2397.981	-2708.144	-2799.037

<표 8> 각 항목별 영향요인 : ④내 집 마련, ⑤출산 및 양육

	Ordered Logit Model	
	내 집 마련	출산 및 양육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1)	-0.40 (0.076)	0.014 (0.077)
연령	-0.044 (0.011)***	-0.044 (0.011)***
교육년수	0.082 (0.018)***	0.039 (0.018)*
혼인상태(미혼=1)	-1.110 (0.122)***	-1.429 (0.124)***
취업 특성		
취업여부(취업자=1)	0.787 (0.209)***	0.247 (0.209)
취업형태(임금근로=1)	-0.966 (0.221)***	-0.373 (0.221)
정규직여부(정규직=1)	0.674 (0.121)***	0.475 (0.121)***
경제적 여건 특성		
가구연소득(로그)	0.755 (0.216)***	0.384 (0.221)
경제적 독립여부(독립=1)	0.421 (0.644)	0.517 (0.648)
심리·정서특성		
사회적지지	2.461 (0.568)***	1.252 (0.610)
자존감	0.769 (0.505)	1.113 (0.551)
상호작용항		
가구소득*사회적지지	-0.202 (0.065)**	-0.046 (0.070)
가구소득*자존감	0.011 (0.058)	-0.044 (0.063)
경제적 독립여부*사회적지지	0.004 (0.213)	-0.050 (0.215)
경제적 독립여부*자존감	-0.132 (0.198)	-0.027 (0.199)
/cut1	7.612 (1.874)	3.884 (1.904)
/cut2	10.020 (1.882)	5.830 (1.909)
/cut3	12.084 (1.887)	7.919 (1.913)
/cut4	15.025 (1.1892)	11.139 (1.913)
N	2,563	2,563
LR cji^2	652.18***	689.98***
Pseudo .R^2	0.097	0.103
Log likelihood	-3012.753	-2977.983

'내 집 마련'에 대한 자신감 수준에는 연령, 혼인상태, 취업형태가 부(-)의 영향을 미치고, 교육년수와 취업여부, 정규직여부, 가구소득, 사회적지지, 그리고 가구소득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선 항목에서와 같이, 연령수준이 높은 경우와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그리고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내 집 마련'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낮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비정규직 보다는 정규직 근로자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자신

감은 높고, 사회적지지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완화시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낮아진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에는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특성으로서 정규직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미혼가 기혼자에 비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정규직 보다는 정규직 근로자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취업특성이나 경제적 여건 특성 그리고 심리·정서특성 이외 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다른 이행기 삶의 내용과는 다른 접근과 이해가 요구된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결과이다.

Ⅳ. 주요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중격차의 한국사회에서 이행기 삶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신감 수준을 살펴보고자 다섯 가지 항목(①인간관계, ②연애 및 결혼, ③일자리, ④내 집 마련, ⑤출산 및 양육)의 총자신감의 수준과 각 항목에 대한 자신감의 수준을 청년들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비교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와 서열로짓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기 삶에 대한 청년세대의 총자신감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3.32점으로 보통(3점)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다섯 가지 항목 중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3.63점)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높고, 연애 및 결혼(3.39점), 일자리(3.26점), 내 집 마련(3.19점)과 출산 및 육아(3.19점) 순으로 높은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낮다는 것은 청년세대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난제로 다가오는 것이 주거와 자녀 출산임을 의미한다. 일자리의 문제는 현재 시점의 나의 노력으로 돌파 가능한 여지가 있지만, 내 집 마련과 출산 및 육아는 개인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청년세대가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생활의 안정적인 주거 없이 자녀 출산과 육아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정책이 곧 일자리정책('청년정책=일자리정책')이라는 틀(frame)로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지엽적적인 대응이며, 일자리문제와 주거정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행기에 있는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정 형성기에 있는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는 주거정책에 무게를 싣는 등 생애주기의 흐름에서 주요정책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포괄적인 청년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청년들의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을 특성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취업특성, 경제적 여건특성, 그리고 심리·정서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

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들 중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그리고 사회적지지와 자존감에 따른 삶의 자신감은 세대 내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양극화된 사회에서 가구소득과 같은 경제적 격차가 사회적지지나 자존감과 같은 삶의 질적 격차를 낳고, 이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격차, 즉 희망격차까지 연계된다(야마다 마사히로, 2010)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격차가 구조화되고, 다시 각 영역의 불평등한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중격차의 문제가 청년세대에서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나타난다(전병유·신진욱, 2016)는 점 또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청년세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는 정책적인 접근은 기본적으로 청년세대를 동일한 연령대의 단일집단으로 가정할 뿐,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없는 청년세대 내 이질성, 즉 세대 내 격차에 대해 정책적 고려는 미진한 상태이다. 최근 청년세대 집단이 다양한 특성을 갖는 하위집단으로 구성되고, 세대 내 격차가 상당한 이질적인 집단이라는데 주목하는 연구(김지경·정연순, 2015; 김지경, 2016)와 청년의식조사(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5)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세대 내 격차와 이질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또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청년세대 내 격차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과 대응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셋째, 이행기 삶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과 미혼상태는 총자신감 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항목의 자신감을 낮추는 공통적인 요인이고, 높은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정규직은 항목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성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자신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43.4%로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취업상태에 있고(통계청, 2017.08.09.), 졸업 후 첫 취업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1.6개월이고(통계청, 2017.07.19.), 청년 취업자의 10명 중 3~4명은 비정규직이며, 특히 고졸자는 더 많아 4~5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1.3% 수준(김유선, 2016.11.22.; 한국노동연구원, 2016)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수의 청년들은 삶의 자신감을 높이는 요인을 갖고 있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화되어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중격차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고졸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요구된다.

넷째, 높은 가구소득은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에, 사회적 지지는 인간관계와 일자리 그리고 내 집 마련에, 자존감은 인간관계와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에 근거하여 본다면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에 대한 경제적 여건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다섯 가지 항목 중 일부 항목에만 유효하며, 그 영향력은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존감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 경제적 독립상태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갖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지지나 자존감과 같은 심리·정서특성은 경제적격차가 삶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 하에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청년세대의 다중격차의 고착화를 완화

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개입이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 청년의회에서 '2017년 10대 정책제안'(서울시, 2017.08) 중 하나로 '감정자본 불평등에 놓인 청년시민의 마음 건강 증진'과 '사회로 나서는 청년을 위한 청년시민 종합생활상담교육'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된 바 있다. 이는 청년들은 이제까지 개인적인 것으로만 간주되었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격차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심리·정서적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것이며, 그에 앞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에 접근함에 있어 간과되어 왔던 심리·정서적 특성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특별취재팀(2017). 부들부들 청년. 서울: 후마니타스(주).

고려대학교부설행동과학연구소(1999). 심리척도핸드북Ⅰ. 서울: 학지사.

_____(2000). 심리척도핸드북Ⅱ. 서울: 학지사.

김성희(2016).「청년실업자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국과 영국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3), pp. 25-47.

김유선(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KLSI Issue Paper 제9호(2016.11.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지경, 정연순(20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2016).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 2016년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마크로밀엠브레인(2014). 삼포세대 관련 조사, 리서치보고서(2014.01), pp.108-136. ㈜마크로엠브레인.

박세길(2015), 한국 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서울: 원더박스.

송동욱, 이기형(2017). 「불안정한 현실과 대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관한 질적인 분석 : 삼포세대,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호명에 대한 청년주체들의 체화된 대응과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4, pp.28-98.

스티븐 J. 맥나미, 로버트 K. 밀러 주니어(2015). 능력주의는 허구다, 김현정 옮김. 서울: 사이.

서울시(2017.8). 2017 서울청년의회 개최 결과 보고 자료.

야마다 마사히로(2010). 희망격차 사회 서울: 도서출판 아침.

장현지, 홍아정(201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찰합습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3(2), pp. 17-40.

조한혜정, 엄기호외(2016), 노오력의 배신. 경기: ㈜창비.

전병유, 신진욱외(2016).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 서울: 페이퍼로드.

최서윤, 이진송, 김송희(2017), 미운 청년 새끼. 서울: 미래의창.

통계청(2017). 2017년 7월 고용동향 보도자료(2017.08.09.).

_____,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결과 보도자료(2017.07.19.).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2015).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한겨제경제사회연구원 개원개념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2016), KLI비정규직 노동통계.

한상숙, 김경미(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pp. 37-44.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2017), 「한국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 불확실성과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정책』 24(2), pp. 87-126.

홍성례(2007).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 남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4(5), pp.37-51.

후루시마 미노리(2015). 조용한 전환: 3.11이 열어 준 공간들. 서울: 교육공동체 벗.

후지타 다카노리(2016). 우리는 빈곤세대입니다. 서울: ㈜시공사.

한겨레(2015.08.19.).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개원 심포지엄] 청년 OTL...열명 중 일곱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부모 경제력 따라 청년들 '취업·결혼 자신감' 달라진다".

Rosenberg, M(1981). The Self-concept: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In M. Rosenberg and R.Tuner(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Basic Books.

Winter, N. C., Myers, K. & Proud, L.(2002). Ten-year review of rating scales Ⅲ: scale assessing suicidality, cognitive style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ic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10), 1150-1181.